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6호 2018년 3월 2일(금)/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입학 축사

02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03 박덕흠 국회의원

03 김지수 총학생회장

Campus News

04 베트남 주요 대학들과 협력 강화 박차

04 미국 델타 퀄리플라이트 비행학교 위탁교육과정 입교식 개최

04 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진행

05 국제군인체육연맹과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 협약 체결

05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동계 인텐시브 토익캠프 운영

05 협약식

Students News

06 2017 동계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동상 수상

06 산업디자인학과 권민철·박형민 학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스포츠용품 디자인 공모전 수상

06 산업디자인학과, '제4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최우수상 수상

Life in JWU

07 중원대학교 토익캠프 영어 한 방으로 끝내기!

08 쾌적한 캠퍼스를 위한 에티켓 1탄 – 기숙사, 너무나도 다른 우리

09 쾌적한 캠퍼스를 위한 에티켓 2탄 – 통학버스, 우리 함께가요

10 나만의 JWU 인스타감성

11 특별한 공부법

12 뭐니 뭐니 해도 MONEY지!

13 오늘은 내가 요리사!

Freshman

14 신입생 네비게이션 J-MAP

15 슬기로운 대학생활

16 새로운 설렘, 함께 즐겨보세요

17 2018년도 총학생회 '미르'

18 선배들의 한 마디

Special

19 꿈을 위한 노력

20 TOGETHER : JWU & HTU 8일간의 여정 – 나눔과 봉사로 하나 되다

21 푸른 잔디위에서 딱딱한 책상 앞으로 2탄

Culture

22 니 여기 아직 아이 가봤니~ 한국 속 중국 '차이나타운'

23 채식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24 신입생을 위한 괴산 읍내지도

JUNGWON UNIVERSITY
START SCHOOL



총장 직무대행 김 두 년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여러분!

2018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뜻깊은 입학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원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도 훌륭한 신입생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희망과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학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우리 신입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길러서 오늘 입학식이 있기까지 소중한 자녀들을 당당한 젊은이로 만들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는 2009년 '해원상생'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인성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집중하면서 우리 시대가 원하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단과 학교,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 9주년이 되는 중원대학교는 기초학문은 물론 항공·우주산업, 의료·보건산업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 대학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기관평가 인증, 간호교육인증 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서 모두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임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법인전입금 비율, 교사 확보율 등 주요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지표에서 충북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대학의 신입생이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결정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인생을 먼저 살아온 스승으로서 오늘 대학인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그레드 S. 레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긍정의 힘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꿈을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을 했는가는 후일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중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대학은 전교생이 건강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캠퍼스 전체를 지열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친환경적인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캠퍼스 내에 천연골프장과 온천장 시설을 갖추고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원어민 교수에 의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서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지식만을 배우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친구와 선·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충분히 성숙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중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200% 활용하셔서 건전한 신체와, 덕망과 지혜를 두루 겸비한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4년간의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문을 누가 먼저 노크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걱정하고 피하기보단 여러분 앞에 놓인 가능성의 문을 자신 있게 열고 들어가십시오. 인생의 시작은 다 똑같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오늘 입학식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중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두년

품성을 갈고 닦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박 덕 흠**

제 20대 국회의원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존경하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중원대학교 2018학년도 제 10회 입학식을 맞아 신입생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괴산지역의 구성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운의 푸른 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중원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과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입학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여러분!

세계를 품은 작은 지구촌,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인 중원대학교는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에서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인성교육과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원상생의 설립이념과 성실·경건·신념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적 아래 인재양성에 노력해 오신 김두년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께서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품성을 갈고 닦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중원대학교에서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진취적으로 실현해나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열심히 문을 두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총학생회장 **김 지 수**

경찰행정학과 4학년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7대 총학생회장 경찰행정학과 김지수입니다.

푸릇푸릇 싹터 오는 새잎처럼 상큼한 기운이 느껴지는 생명의 계절에 중원대학교의 일원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원대 학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대학생으로서 벅찬 감격과 설렘 등으로 가득한 신입생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을 하다가 선배로서 솔직하고 담백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중원대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역사가 깊지 않아, 사회에 나가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딛어 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학벌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길은 우리가 가진 젊음이고 패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직접 사회에 나가 글로벌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끌어 학생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실패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 역시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열심히 문을 두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젊음이란 밑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 저희 중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여러분의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에서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중원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기부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참여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079

베트남 주요 대학들과 협력 강화 박차

우리대학이 베트남 호찌민기술대학교(호찌민 소재), 투저우못대학교(빈증성 소재)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고 있다.

중원대 정희택 부총장과 이홍찬 국제교류원장 등은 지난 25일 호찌민기술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26일 투저우못대학교(Thu Dau Mot University)를 방문해 대학간 △교수 및 학생 등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자료 교환 △공동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에 합의했다.



▲호찌민기술대학교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저우못대학교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호찌민기술대학교는 1995년에 설립되어 경영, 재무 및 회계, 기계공학, 바이오 식품 기술 분야 등의 11개 학부, 14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해 호찌민시의 기술 산업 및 경영 교육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투저우못대학교는 30개의 전공 학부와 9개의 전공 대학원을 운영하는 재학생 15,000여 명 규모의 4년제 국립대학이다.

중원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베트남 지역 대학들과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희택 부총장은 "베트남 대학들과의 협약을 계기로 대학간 국제공동연구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연구 기관과 대학과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원대 해외봉사단은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호찌민기술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호찌민 외곽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해 한글 교육, 태권도 시범 공연, 고아원 건물 페인트칠 및 보수작업 등의 봉사활동도 펼치며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편집부〉

미국 델타 퀄리플라이트 비행학교 위탁교육과정 입교식 개최




▲우리대학 지충일 교수를 비롯한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입교식을 마치고 퀄리플라이트 비행학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지난 2일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비행학교 'Delta Qualiflight Aviation Academy(이하 D.Q.A)'에서 조종사 비행훈련 위탁교육과정 입교식을 가졌다.

이번 위탁교육과정은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3학년 재학생 중 10명을 선발하여 미국 D.Q.A 비행학교에 보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집중적인 비행훈련 실습교육을 받고 미국 비행면장 취득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입교식에는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지충일 지도교수, D.Q.A 아담 하메디 부사장 등이 참석해 비행조종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위탁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입교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입교생들은 1년간 200시간 이상의 △자가용 조종사 △계기비행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조종사 교육과 비행훈련 실습교육을 통해 미국 비행면장을 취득하게 되며 귀국한 후 국내 비행면장 전환 과정으로 중원대 비행교육원에서 50시간의 비행실습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충일 교수는 "입교생 모두 비행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면허를 취득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의 비행훈련교육을 통해 항공사들이 필요로 하는 조종사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D.Q.A는 1969년 학교 대표 K.M.Miloud가 설립한 전문 비행학교로 지금까지 99개국 8,000여 명의 조종사를 배출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비행조종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원대학교와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약을 맺어 유기적 상호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위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진행



▲우리대학 해외봉사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해외봉사단이 동계방학을 맞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베트남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재학생 25명과 봉사단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제2기 해외봉사단은 호찌민기술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호찌민 외곽지역의 고아원 방문과 한글 교육, 태권도 시범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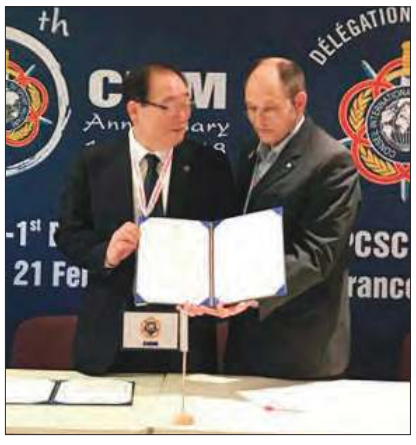
이번 봉사활동에서 중원대 학생들은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 전파 △태권도, K-POP, 그림그리기 등 예체능 교육 △위생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교육봉사와 고아원 건물 페인트칠 및 보수작업 등의 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중원대 학생들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손수 만든 쿠키, K팝 아이돌 사진, 문구류 등의 작은 선물을 직접 마련해 전달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이아현(사회복지학과 2학년)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며 "이곳 아이들이 우리의 작은 관심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봉사단장인 권정현 교수(레저스포츠학과)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1기 중원대학교 해외봉사단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봉사 및 건물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주변 마을의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편집부〉

국제군인체육연맹과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 협약 체결



▲김두년 총장대행이 2월 18일 프랑스 니스에서 진행된 '국제군인체육연맹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 협약식에 참여해 인사말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국제군인체육연맹(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이하 CISM)과 오는 9월부터 공동으로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18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CISM 창립 70주년 행사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중원대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과 박찬규 대학원장, CISM 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이 참석하여 공동 석사학위 과정 개설을 최종 합의했다.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중원대에서 4학기를 수학하는 제도로 중원대와 CISM이 공동으로 교수진을 구성해 스포츠·인문사회과학 융합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국가의 대학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 학위프로그램을 박사과정까지 확대 개설할 예정이며 공동 학위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ISM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군인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3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단체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한편 중원대는 2015년에 압둘하킴 알시노 CISM 회장에게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2016년 10월부터 CISM과 협약을 맺어 공동 학위프로그램을 협의했다. 〈편집부〉

2018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졸업생들이 학위모를 하늘을 향해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2월 23일 오전 11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8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나용찬 괴산군수, 학위 취득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493명, 석사 12명, 박사 7명 등 총 512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학위 수여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학사보고 △학위 및 상장 수여 △이사장 치사 △총장 식사 △초청인사 축사 △졸업생 대표 답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석졸업자인 권경희(의약화학과) 학생이 이사장상을, 학업성적 우수자인 박규태(경영학과), 홍선희(의생명과학과), 정보경(임상병리학과), 구혜지(항공재료공학과), 강보람(산업디자인학과), 최정진(스포츠건강의학과)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이 모교인 중원대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응원해 주길 바란다"며 "중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PHOTO NEWS

협약식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교무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재길)와 국가 및 충북지역 특화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베트남 호찌민 기술대학교, 투저우못대학교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베트남 호찌민기술대학교(호찌민 소재), 투저우못대학교(빈증성 소재)와 공동연구와 교환학생 제도 등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취 · 창업지원센터, 괴산군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체결
취 · 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2월 27일 괴산군 경제과,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3자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취업지원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제주항공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지난 12월 21일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과 항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기술이전 업무협약 체결
지난 12월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화) 및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회장 배오수)와 스마트허브(반월 ·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대한민국무예단체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17일 대한민국무예단체장협의회와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단신

1 안조근 교수, 국제디지털디자인 초대전 우수작품상 수상

산업디자인학과 안조근 교수가 최근 한국콘텐츠학회 주최로 태국 빠툼타니에서 개최된 '국제디지털디자인 초대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번 초대전에 중원대 안조근 교수가 출품한 'LG Food Waste Dryer (LG전자를 위한 음식물 건조처리기)'라는 작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시켜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순환시스템 구조로 제작되어 눈길을 끌었다.

2 2018년 시무식, 경쟁력 강화 다짐

우리대학이 1월 2일 오전 11시 CEO룸에서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업무의 시작과 각오를 다지기 위한 '201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 간호교육인증평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에서 인증을 획득하고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충북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우리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자연나라(주)' 김보라 대표가 12월 20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사)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가 주관하는 '충북우수중소기업인 시상식'에서 '유망창업기업인상'을 수상하였다.

4 창의인성교육센터, 2017년 양성평등 토론회 개최

창의인성교육센터가 12월 4일 CEO ROOM에서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중원대 창의인성교육센터가 주관한 '2017년 양성평등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양성평등 토론회는 충청북도의 대학들이 연합해 미래의 충북을 이끌어 갈 남녀 대학생들이 양성평등적 사고와 서로 배려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7 동계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동상 수상

우리대학 생체의공학과 조재홍, 손민규, 메카트로닉스학과 김진호 학생의 "스마트 손가락 재활 시스템" (지도교수 이지연)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야마구치 공과대학 토키와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 5차 CEDC & ICIARE"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CEDC(Creative Engineering Design Competition) & ICIARE(Innovation Application Research and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는 한국, 중국, 일본의 3~4학년 대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영어로 발표해 참가국의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평가 받는 '국제 창의공학설계 경진대회'이다.



▲2017 동계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경영대회 참여한 학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민영실(의약바이오학과), 이지연(의료공학과), 이홍찬(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교수

이번 대회에는 일본 야마구치대학, 중국 장수대학교 및 대련공대, 충칭이공대학, 한국의 중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에서 11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참가학생들은 3일간 작품 발표, 현장 심사 및 제품시연을 통해 스스로 작품을 설계·제작해 봄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키우고, 영어 발표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대학은 창의인성교육센터가 주관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3개국에서 순환 개최하는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창의인성교육센터는 CEDC&ICIARE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학생역량증대를 통해 국제 캡스톤디자인 다각화에 기여하는 문제 해결형 Project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편집부〉

산업디자인학과 권민철 · 박형민 학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스포츠용품 디자인 공모전 수상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권민철(10학번) 졸업생과 박형민(14학번) 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스포츠용품 디자인 공모전 'S-IDEA 2017'에 참가해 지난 8일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S-IDEA 2017' 디자인 공모전은 자전거, 축구공, 인라인스케이트, 태권도화 등 스포츠용품 디자인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디자인을 출품하면 실용성, 창의성, 편의성, 예술성 등을 1차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심사와 검증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민철, 박형민 학우가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팀을 이뤄 참가한 중원대 산업디자인학과 권민철 졸업생과 박형민 학생은 안조근 지도교수의 조언과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배달용 전기 자전거 공모 주제에 디자인을 출품했다.

특히 중원대 팀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달용 전기 자전거를 세발자전거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안전성이 우수하고 탈부착이 가능하게 디자인한 배달통은 오염 시 손쉽게 이동과 세척이 가능하여 매우 위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민철 졸업생은 "공모전 참여를 독려해주신 안조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큰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중원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공익에 기여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관련기사 19면

산업디자인학과, '제4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최우수상 수상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이 지난 11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제4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활동성과 발표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중원대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이쿠조팀'(김하늘, 김미송, 이준구, 노학현)이 청주 수암골 안내사인디자인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해맑게웃조팀'(우환수, 김유미, 김이영, 우도오, 이준희)이 신항 약초 꽃향기마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디자인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사업은 대학과 충청북도가 협력해 추진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의 디자인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도정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개발, 실제 활용·설치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시·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하늘 학생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전공을 살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며 "작은 아이디어지만 지역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노력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제4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시상식을 마치고 우리대학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중원대학교 토익캠프

영어 한 방으로 끝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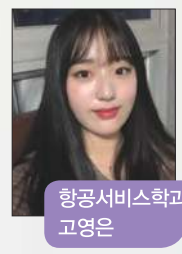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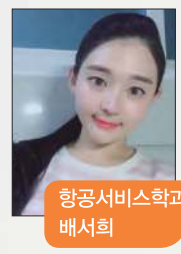
유익한 겨울방학 보냈나요?
여행, 아르바이트, 학업 등 각자 다양한 이유들로 방학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학업을 위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모여 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원대학교 동계 토익캠프입니다! 올 겨울 중원대학교에서 특별한 방학을 보낸 친구들을 만나보시죠.


레저스포츠학과 정종학


항공서비스학과 강현정


항공서비스학과 고영은


항공서비스학과 배서희


항공서비스학과 이선영

Q. 토익캠프를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선영 저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언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토익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방학에는 어떻게 토익공부를 할지 고민하던 중 토익캠프를 무료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이제 졸업하는데 토익 점수가 없이 졸업하면 안 될 것 같아,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여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제가 원하는 직업인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익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도중 방학기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익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Q. 목표로 하는 토익 점수가 있나요?

선영 서희 750점입니다.
종학 700점대입니다.
현정 이번 방학의 목표는 500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800점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토익캠프를 통해 실제로 향상된 부분이 있나요?


영은 매주 금요일에 모의 토익을 실시함으로써 RC 부분의 시간 분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졌고, 무엇보다 문법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선영 반복적으로 듣기연습을 하여서 LC 파트에서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긴장하지 않고 집중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RC같은 경우에도 푸는 속도까지 신경 쓰면서 연습했습니다.

Q.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가요?


선영 무엇보다 의지가 부족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토익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귀찮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익캠프는 매일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더욱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특히 이동시간 등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희 토익캠프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다보니 단기간에 집중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 해 주고 싶습니다.


종학 휴학하거나 자퇴하지 않을 2학년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토익 점수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2학년 때 시작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토익의 파트별 유형을 파악하여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저처럼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 학원 다니기도 귀찮은 사람들과 토익을 독학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할지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토익캠프가 딱 이라고 생각합니다!!

Q. 토익캠프를 참가해 본 소감을 말씀 해 주세요.


선영 빼곡한 스케줄에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꾹 참고 공부를 하고나면 그 뿌듯함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여 저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희 중원대 토익캠프는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라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 평소 방학이었으면 추워서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을 저인데 방학 한 달 동안 매일 12시간씩 토익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토익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Q. 토익캠프에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희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번 기회에 점수를 많이 올려 다음번에는 참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네 있습니다. 다음 토익캠프에도 참가하여 고득점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토익캠프 초급 담당 이한영 강사님



Q. 토익캠프를 진행하면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선 학생들이 토익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영어 기초 실력을 높이고 실제 토익 점수도 향상 되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시작한 일에 대해 책임감과 끈기를 갖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Q. 어떤 학생들에게 토익캠프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 영어를 배워야하는 필요성을 아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추천합니다.

Q.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

집중력을 기르세요. 영어, 특히 토익은 금방 늘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하루하루 실력이 느는 걸 느낀다면 고득점 할 수 있어요.

토익캠프는 매년 방학마다 실시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양학부로 문의 해 주세요!
☎ 043-830-8567



쾌적한 캠퍼스를 위한

에티켓 1탄

- 기숙사, 너무나도 다른 우리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네요. 다들 기숙사 입사는 잘 하셨나요? 한 공간에 한 학기동안 지낼 룸메이트는 어떠신가요? 누구랑 룸메이트가 되었건 같이 지내다보면 정말 친한 친구, 편한 선후배가 되어,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된답니다. 물론 같이 살다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서로 에티켓을 지켜준다면 얼굴 붉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기숙사 에티켓을 알아보죠!

01 클린데이, 함께 청소하기

우리학교 기숙사의 클.린.데.이. 다들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 클린데이는 룸메이트 모두가 같이 청소하는 날로 층장들이 점호시간에 검사를 한답니다.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같이 생활하는 공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데 혼자 튀기 있기? 없기?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청소해요. 그렇다고 클린데이에만 청소하는 것은 아니겠죠? 평소에도 자기 자리는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에티켓이랍니다.





02 룸메이트 물건 손대지 말기

자신의 물건 외에 다른 사람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룸메이트의 물건을 빌릴 경우 꼭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예의랍니다.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답니다. 꼭 사용 전에 물어보고 사용 후 다시 돌려주세요. 자칫하다 오해가 생기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답니다.





03 이어폰을 착용해 주세요



핸드폰 볼륨과 목소리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핸드폰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어폰을 꼭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복도에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떠들면 룸메이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늦은 시간이나 시험기간에는 룸메이트를 위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기본 중에 기본인 에티켓이랍니다.

04 타 호실 학생들의 출입



방에 친구를 데려올 경우 룸메이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숙사의 에티켓! 방문하여 큰 소리로 떠들거나 예의 없는 행동은 자제해야겠죠? 또한 12시 이후 타 호실에서 떠들 경우 벌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늦은 시간 대화가 필요하다면 기숙사 휴게실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05 알람 듣고 일어나기



알람을 듣고 못 일어나는 사람 꼭 있죠? 일어나는 시간이 같을 경우는 괜찮은데 룸메이트의 기상시간이 늦는다면 자신의 알람을 듣고 일어나 바로 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알람을 다른 사람이 듣고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또한 자신이 못 일어날 것 같다면 룸메이트에게 깨워달라고 하시거나 꼭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행복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에티켓을 알려드렸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5가지 이외에도 많은 에티켓이 존재하지만 모두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기숙사생활을 해봅시다!

[모델 : 항공서비스학과15학번 오선민]

박수현기자 qkrtngus2015@jwu.ac.kr

제16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쾌적한 캠퍼스를 위한

에티켓 2탄



- 통학버스, 우리 함께가요 -

쾌적한 캠퍼스를 위한 에티켓!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에티켓을 잊고 지내지 않았나요?
나의 사소한 행동에도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위해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중대전에 잊힐 때 쯤 올라오는 통학버스 에티켓 문제! 지금부터 버스 에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함께 에티켓을 실천하며 바른 캠퍼스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모델 : 산업디자인학과15학번 정희진] ,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01 탑승 후에는 손잡이를 꼭 잡기



버스가 출발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버스에서 넘어지면 다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칠 수 있답니다. 안전을 위해서 탑승 후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버스 출발합니다~

02 다른 사람이 내린 후 탑승하기



다른 사람이 내린 후 탑승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모두 내린 후 기사님의 탑승사인을 받은 후 탑승하시면 된답니다. 탑승 할 때 밝은 인사와 함께 탑승을 한다면 아주 칭찬해~

03 전화통화, 대화는 작은 소리로 간단히 하기



마치 내 집인 마냥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전화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답니다. 너무 큰소리로 계속 떠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 하겠죠?

04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할 때 이어폰을 사용하기



스마트한 시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어폰을 끼지 않고 소리를 키운 상태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네요. 이어폰을 꽂더라도 볼륨을 조금만 줄여 주세요. 이어폰 사이로 새어나오는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답니다.

05 차내에서 음식물 먹지 않기



통학버스에서 음식물 섭취는 중대전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에티켓 중에 하나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버스 에티켓이랍니다. 식사를 할 시간이 없는 바쁜 학생들이 식사를 버스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음식냄새로 인해 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냄새가 나는 음식들은 먹지 않은 것이 에티켓이랍니다. 아무리 조심히 먹는다고 해도 쓰레기와 냄새는 생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서 도착 후 내려서 드신다면 모두가 쾌적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04 책가방, 캐리어 등을 갖고 탈 경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책가방을 뒤로 메고 버스를 탄다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방을 뒤로 메고 탔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방이 뒤에 있어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짐이 많다면 짐칸에 올려놓는다거나 가방을 앞으로 메는 방법도 센스 있는 방법이겠죠?



중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

나만의 JWU 인스타감성

여러분은 중원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장소를 제일 좋아하나요? 쉴 수 있고, 힐링도 하고, 편하고, 아늑한 공간 등 이유도 다양한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나만의 아지트.. 왠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가끔은 기숙사를 벗어나 특별한 공간에서의 휴식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학생들이 말하는 캠퍼스 내의 특별한 장소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Jungwon Stagram

정희진 (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박물관 옆 계단을 내려간 후, 잔잔한 물이 흐르는 연못을 지나면 식물원이 보입니다. 제가 평소에 꽃을 좋아하는데요, 언제든지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요즘 같은 쌀쌀한 겨울은 물론 4계절 내내 항상 열려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는지 항상 식물원 안에 있는 꽃 상태들도 좋고 은은한 꽃향기가 저에게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난 후나 산책하고 싶을 때 자주 이곳을 온답니다.

#식물원 #푸릇푸릇 #꽃내음 #힐링

Jungwon Stagram

박숙인 (국제통상학과 16학번)



학교 운동장에 있는 정자예요. 날씨 좋은 날 여기 앉아 있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기숙사에만 있으면 공기가 탁 하잖아요. 여기 앉아 괴산의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 정말 편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정자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계절별로 변하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푸른 잎들이 풀 향기를 풍기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어요. 여기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자 #팔각정 #나무 #사계절

Jungwon Stagram

배서희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여기는 제가 1학년 때 우연히 알게 된 곳이에요. M2 쪽 2층에 있는 곳인데요. 1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 쪽으로 나가려는데 왼쪽에 어떤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가 많더라고요.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자주 가기도 하고 특히 소리 내어 실습 준비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외울 때 이곳을 많이 갔어요. 사람도 잘 오지 않고 조용하기도 하구요, 넓은 창밖으로 탁 트인 풍경은 덤! 제가 좋아하는 특별한 공간이랍니다.

#라운지 #조용 #아늑한

Jungwon Stagram

조영호 (중국어학과 11학번)



본관 4층 M1, M2에 위치해 있는 휴게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죠. 도서관에서는 얘기하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과 과제를 하거나 조별과제 등을 할 때 자주 애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석에 소파도 있어 신발 벗고 휴식 취하기 좋아요.

#휴게실 #본관 #조별과제_모임

Jungwon Stagram

김영재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이곳은 3층에 있는 잉글리시 카페입니다. 영어로 주문만 하면 무료로 음료도 주는 이곳은 저의 최애 공간이기도 하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보드게임도 많아서 공강 시간에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자주 하러 가요.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도 항상 계시고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잉글리시_카페 #무료_음료 #영어로_주문 #보드게임

Jungwon Stagram

오선민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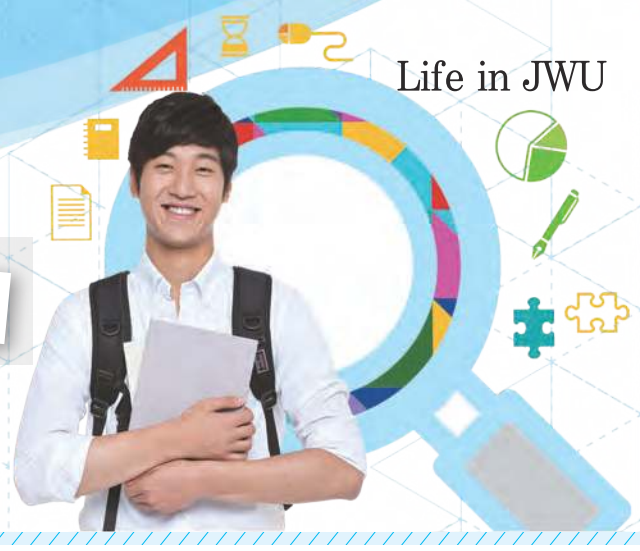


저만의 아지트는 바로 놀이터의 흔들의자랍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쉬고 싶어지면 항상 흔들의자를 찾아요. 의자를 흔들거리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가 지고, 별이 뜨면 괴산의 맑은 공기 덕분에 별 구경하기 딱 좋은 곳이랍니다. 데이트하기도 좋으니 날씨가 좋은 날, 꼭 한번 가 보시길 추천해요!

#흔들의자 #놀이터 #데이트 #동심

특별한 공부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애써 공부한 내용들은 왜 머릿속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는 걸까요? 남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하기에 그렇게 기억들을 잘하는 건지... 결국 같은 공부를 해도 더 잘 외우고 더 쉽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오래오래 기억되게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한민혁 1010hmh@jwu.ac.kr

'반복학습'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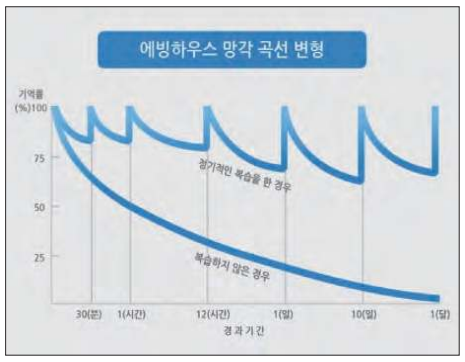
레저스포츠학과
이용호(12학번)
4.5만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이 빨리 사라지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오래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공부법은 '반복학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복습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최소 4회는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억을 보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책상에 오래앉아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맞았네요.

*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인간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는 사실을 실험연구를 통해 알아내었다. 한번 기억한 것도 한 시간이 지나면 50% 이하만 남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20% 도 채 남지 않는다고 한다.



저는 일단 여러 번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개념을 익히기 시작해요. 그다음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며 계속 반복학습 했던 거죠. A4용지에 적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머릿속에 확실히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학점도 B에 머물다가 이 공부법을 시작하고 부터는 A^{+}을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설명하기' 공부법

항공재료공학과
12학번 황보석
성적 상승





학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에 따라 효율성이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듣기만 했을 때는 5%, 들으며 읽기까지 했을 때는 10%, 시험강의는 30%, 집단토의는 50%, 실제로 해보면 7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서로 설명하기' 라고 합니다.

'서로 설명하기' 공부법은 '내가 선생님이 되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듯 공부했던 것들을 서로에게 설명해주면서 다시 되짚는다면 공부효과는 배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서로 설명하기' 방법부터 실천해 옮겨봐야겠네요!

저는 시험강의(인강)을 주로 이용했어요. 조용히 방에 앉아서 편하게 시험강의를 들으면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 이해력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공부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은 마지막 '서로 설명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하게 되고 기억도 훨씬 잘되었습니다.

'파란펜' 공부법

신재생에너지공학과
14학번 김영재
4.5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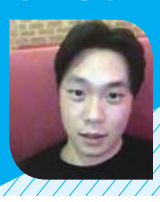
여러분이 사용하는 볼펜의 색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검은색 펜은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펜 공부법은 기억력을 상승시키는 인상 효과와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의 성격을 가진 파란색을 이용한 공부법입니다.

사람의 뇌가 파란색을 보게 되면 '세라토닌'이 분비되어 흥분상태를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나타나는데 '세라토닌'은 단기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란펜을 사용하게 되면 인상효과와 진정효과 이 두 가지로 인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기를 할 때 파란펜으로 필기를 하면 더욱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쉽게 구할 수 있는 펜이니 속는 셈 치고 오늘부터는 검정 펜보다 파란 펜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식 같은 공부법이여서 못 믿었어요. 속는 셈치고 파란색 공부법을 실천했습니다. 평소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는 저로써는 색깔이 너무 튀는 거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내가 적었던 문장들이 훨씬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는 신기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10회 독파하기' 공부법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2학번 강신권
성적 향상



'10회 독파하기' 공부법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3회 독파)는 연필로 모르는 단어나 중요단어에 밑줄을 그어가며 편하게 책을 읽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2회 독파)는 형광펜으로 핵심어 들을 표시해 가면서 읽습니다. 이때부터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3단계(5회 독파)는 연필로 밑줄 그은 글과 형광펜으로 표시한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총 10번을 독파하고 나면 책 한권이 여러분 머릿속 안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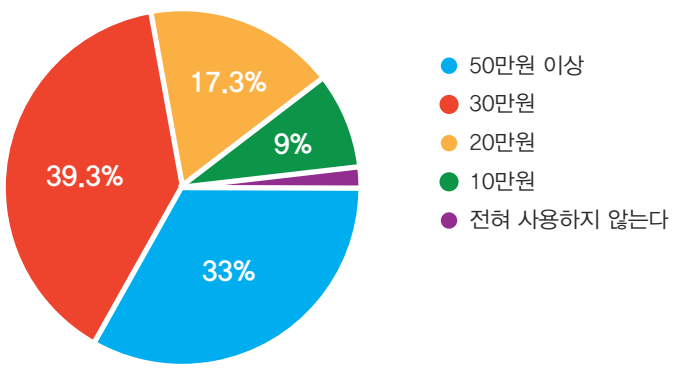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차근차근 밑줄을 쳐가며 여러 번 반복하다보니 책을 보지 않아도 몇몇 문장들은 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여러 번 읽은 공부 내용일수록 기억하는 기간도 오래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MONEY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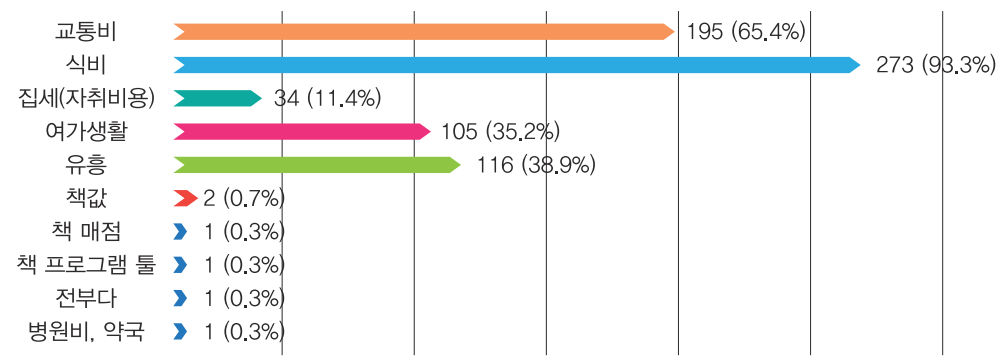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돈', 이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단기간에 지갑이 홀쭉해지는 경험들 있으시죠? 또 내 '돈' 이 어디에 자주 쓰이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 '텅장'이 되어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JR이 효과적으로 내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용돈 관리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괴산 내 용돈 지출 금액의 표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괴산 내 용돈 지출 유형 <중원대 재학생 300명 조사 결과>



위의 그래프는 지난학기 중원인들의 소비패턴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주로 식비와 교통비에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식비 같은 경우 물론 맛있는 음식들을 사먹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카페테리아나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방법도 식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그 외에도 체계적인 돈 관리를 한다면 더 좋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계획 짜기

용돈관리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용돈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한 달에 한 번 받는 용돈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며칠 만에 텅장이 되지 않겠어요? 이 방법을 조금 바꾸어 한 달 용돈을 나누어 주1회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1회 용돈을 받아 사용하면 돈을 분배시키는 날이 줄어들어 쉽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과소비를 하는 날을 대비하며 돈 분배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죠?

02 현명한 소비하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자 제일 걱정되는 '소비'!! 대학생 때부터 이 '소비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취직을 하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더욱 효과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비습관으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가계부 작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가계부 작성만큼 나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 중에도 가계부 어플이 많이 출시되어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 어플은 '슬기로운 대학생활' 기사 편을 참고하세요!

03 저축하기

마지막으로 저축은 앞으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 소비 등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저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저축하기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적 저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목표 저축액을 정해 차근차근 모아나간다면 올바른 저축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저축액을 너무 높게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목표치를 낮게 정해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을 자주 느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비생활을 하길 바라며 보다 풍요로운 대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오늘은 내가 요리사!

- 기숙사 요리 열전



여러분은 식사를 어디서 해결하시나요?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기숙사에서의 한 끼는 항상 비슷하고 한정적입니다. 더더욱 기숙사 내에서 불(전열기구)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서 요리를 해서 먹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숙사와 매점에 비치된 전자레인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함께 만들어봅시다!!

01



준비물 :
핫케익 가루, 종이컵, 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첨가 하고 싶은 과일, 쨈
(잘 알려져 있는 백종원의 컵빵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핫케익 가루와 토핑만 있으면 됩니다.)

02



종이컵에 핫케익 가루를 3분의 1정도 넣어 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부풀어 오르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됩니다.)

03



물도 3분의 1정도 넣어 줍니다.
(물은 조금씩 저어가면서 넣어줍니다. 묽은 것 보다는 숟가락을 들었을 때 어느정도 점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04



과일&쨈을 넣어줍니다.

05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줍니다.
※다음 학생을 위해 뒷정리는 필수~!

06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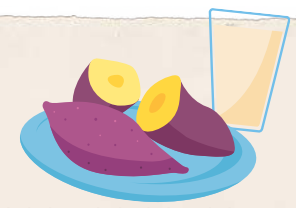
그외 기숙사에 할 수 있는 요리!

계란찜



1. 준비물: 계란, 용기, 소금
2. 용기에 계란을 2개 정도 담고, 계란을 잘 저어주면서 풀어줍니다.
3. 계란 부피의 3분의 1정도로 물을 넣습니다.
   (우유를 넣어주면 계란찜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4.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랩이나 그릇을 씌워, (3~4개 기준)
   전자레인지로 5분 데웁니다.
   ※전자레인지는 수분이 많이 뺏겨서 물을 많이 넣는 게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고구마 칩



1. 준비물: 생고구마, 칼, 접시
2. 고구마를 깨끗이 씻고 감자칼로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썰어줍니다.
3. 썰어준 것의 전분을 빼기 위해서 물에 10분정도 넣습니다.
   (귀찮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자주자주 뒤집어주세요~!)
4. 접시에 고구마를 놓고 2분 30초로 돌립니다.
5. 고구마 칩 완성~!

찐 고구마

씻은 고구마를 신문지 반장에 돌돌 말고, 촉촉하게 젖도록 물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돌리면 고구마 냄새가 솔솔~~~

신입생 네비게이션 J-MAP



우리학교에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점이 강의실이나 각 부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매년 신입생들은 강의실을 찾지 못해 지각하기 일쑤, 학교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용건이 있는 부서를 찾지 못해 학생들에게 물어보곤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글만 읽어본다면 당황하지 않고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학교 호실 분류 방법과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부서 및 시설들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그전에 잠깐!! 반드시 이것을 알아두어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본관에는 Main1 'M1' 과 Main2 'M2', 아카데미 홀 'A', 호실 옆에 S가 붙어있는 S동(학생회관)까지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S(학생회관), M1(본관 1동), M2(본관 2동)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카데미 홀은 M1과 M2 뒤쪽 2,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원 VIP

총 장 실 : M1-312, ☎ 043-830-8020
– 현재 김두년 총장대행이 계십니다.

부총장실 : M1-315, ☎ 043)830-8023
– 정희택 부총장님이 계십니다.

교내 행정부서 및 기타 시설

장학금 문의는 이곳!!

학생장학팀 M2-212호, ☎ 043)830-8105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서입니다. 장학금 관련 문의나 국가근로 관련 문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여기로!!

학생상담센터(성고충상담소) S-210호
☎ 043)830-8143(8145)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다양한 검사, 교육 그리고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사건의 처리를 지원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S-207호 ☎ 043)830-8383

개인적, 환경적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학습 도우미제도, 이동편의시설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고충은 여기로~

생활관 행정실(당직실) ☎ 043)830-8255~7, 8245~7(남-8258, 여-8248)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업무가 끝난 심야시간에는 당직실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공부는 여기서~

학술정보원(도서관) M1-505호
☎ 043)830-8204~7

전공 및 교양 관련 서적, 도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시원(행정실) S-402호 ☎ 043)830-8163

국가고시, 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개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열람실, 온 · 오프라인 강의 수강 등을 지원합니다.

열람실 M2-501,2,4,5호

방해 받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면 조용한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스펙은 여기로~

취 · 창업지원센터 S-206호 ☎ 043)830-8125

취업역량강화 및 취 · 창업지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M2-403호 ☎ 043)830-8133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상담, 학습법 특강 및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 043)830-8233

골프, 수영 등의 교양 및 헬스케어과정과 바리스타 등의 자격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합니다.

홍보팀 M1-309호 ☎ 043)830-8074,8076

'JR 언론장학기자단', 학생 홍보대사 '가람' 관련 문의 혹은 홍보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및 꼭 알아 할 부서

교운부 S205호 ☎ 043)830-8153

셔틀버스, 통학버스 등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예비군대대 M1208-2호 ☎ 043)830-8191

예비군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서입니다. 학생 예비군훈련 등을 운영, 관리합니다.

카피센터 S203호 ☎ 043)830-8763

학생들을 위한 복사기, 프린터 등의 시설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인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 운영회실 S505호

총학생회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 할 부서!! 학과사무실

사회문화대학 사무실 ☎043)830-8553~5
융합과학기술대학 사무실 ☎043)830-8573~5
의료보건대학 사무실 ☎043)830-8673~4
항공대학 사무실 ☎ 043)830-8477~8

그 외 교내전화번호는 학교 홈페이지 → 중원소개 → 캠퍼스안내 → 교내전화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슬기로운 대학생활

위아 스띨 헝그디! 필수 어플소개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슬기로운 대학생활로 복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어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중원대학교 어플부터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어플을 활용해서 우리 다함께 슬기로운 대학생활 보냅시다.

중원인 필수 어플

중원대학교 전자출결 어플

중원대학교 학생이라면 필수로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 출석 체크 어플입니다. 강의 시간표 확인과 시스템 공지 및 교수님 전달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 시간에 모바일 단말기로 출석 체크해서 네! 하면서 손드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모바일 ID

QR코드가 첨부된 해당 어플을 활용하여 교내와 관련기관에서 학생증 또는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 로그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발급 화면이 표시되면 한 번의 발급 버튼 클릭으로 바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은 도서검색, 대출조회, 전자북, 학술DB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모바일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 어플

에브리 타임

에브리 타임은 대학생 어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모든 대학생의 왕필수어플입니다. 시간표 짤 때, 학교 행정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수강 편람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수님 이름만 검색해도 자동으로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또한 대학별 학식, 열람실 현황, 셔틀버스 시간, 학사일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몬

지각없는 아침을 보장합니다.
연예인 알람소리, 캐릭터 알람 게임, 동영상 알람 등, 내가 원하는 알람소리를 설정할 수 있고 기상 할 때까지 울려서 기어코 일어나게 만드는 알람시계 어플입니다.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알람 설정하기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잠이 많은 당신에게 이 어플을 강추합니다.

타임잇 (Time It)

시간관리가 어려우신가요?
하루 활동을 카테고리에 넣어 내 생활에 맞게 설정하고 공부나 이동, 휴식을 할 때 스톱워치로 기록하면 그 시간 때에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평소에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 할 수 있고 당신의 하루를 기록 할 수 있어서 아쉽게 혹은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펙 및 학업관련 어플

애드투 페이퍼

전국 130여개 대학교와 가맹을 맺었고 70만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어플입니다. 어플 내에서 충전한 프린팅 포인트(애딧)를 통해 학교에 있는 큐브를 이용해 무료로 프린팅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가입 즉시 5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획득 방법은 출첵과 이벤트 참여 또는 결제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CamScanner

문서를 스캔하는 어플입니다.
스캔할 문서를 사진으로 찍으면 배경을 제외한 문서만을 자동 인식하고 고화질 JPEG 이미지나 PDF문서 파일로 생성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또한 SNS채널과 공유가 가능하고, 편집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캠펑

공모전과 대외활동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스펙을 책임 질수 있는 가장 유용한 어플입니다. 각종 공모전, 서포터즈, 봉사활동, 취업, 인턴, 대학 꿀팁 등 대학 4년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또한 그룹펑 기능으로 공모전이나 봉사활동에 같이 참가할 팀원을 구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자격

국내 자격증 개수가 약 2만 5천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지 자격증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관심 있는 직종 분야를 선택하여 관련 자격증을 찾아보세요!

경제 관리 어플

똑똑 가계부

똑똑 가계부 하나면 나도 '통장 요정'~ 대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 소비하는 게 많아집니다.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자신의 소비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입금과 지출 내역 관리는 기본! 입출금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주는 똑똑한 가계부 어플입니다.

캐시카우

구매한 장소에서 영수증을 촬영하고 영수증 하단 바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상품과 구매 수량을 입력하면 포인트를 주는 어플입니다. 그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토스

공인인증서 없이 쉽고 간편한 송금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모든 금융 계좌를 토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보내는 금액과 암호만 입력하면 되는 편리함과 더불어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도 해야 하고 이전과 다르게 생활이나 소비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어플을 잘 활용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정보를 많이 얻길 바랍니다. 이 글로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제16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새로운 설렘, 함께 즐겨보세요

– JWU 동아리 소개



Happy new year! 한 해, 한 학기를 새로 시작하는 만큼 올해의 다짐이나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설레는 한 학기의 시작을 새로운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까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동아리! 아직도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꼭 읽으셔야겠네요. 각 동아리의 대표들이 직접 동아리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2018년 총동아리연합회 '설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01 총동아리연합회 '설렘'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설렘'입니다.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그리고 재학 중인 재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총동아리연합회 '설렘'에서는 17년도 중앙동아리 15개로 운영을 하였으며, 18년도 현재 중앙동아리 10개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의 18년도 첫 행사인 동아리 홍보부스운영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동연이란? 중앙동아리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심사하며 각 동아리 회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 동아리 대·내외 교류 및 축제, 각종 행사와 각 동아리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연합회입니다.

회장_사회복지학과 15학번 정지예/부회장_레저스포츠학과 12학번 김수호

02 N.O.N

2012년에 창설된 사회공헌 동아리 N.O.N입니다. N.O.N 은 (Now Or Never)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N.O.N은 대외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타 과생들과 함께 어울려 직접 기획한 교육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복지시설, 타 대학 봉사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장_사회복지학과 16학번 신여진

03 힐링



동아리 힐링,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으로 감명을 줍니다. 힐링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과 맛집 등을 사람들에게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해주는 동아리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마음을 정화할수 있는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회장_경영학과 14학번 황하성

04 통일과 평화



저희 통일과 평화 동아리는 대학생으로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고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여 통일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단체와 통일토론대회, 이탈주민 및 명사초청 특강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장_국제통상학과 16학번 차민주

05 지향地香



지향은 '지나간 자리에 남는 향'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조향사* 동아리로 향을 조합하는 활동을 통해 나만의 향수, 디퓨저, 향초 등과 같은 향유 제품을 연구하고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조향 활동 외에도 동아리 자체 내의 엠티 및 회식 등을 통해 자칫 외로운 대학 생활에 있어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동아리로서 타 학과 학생들과도 쉽게 교류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축제, 체육대회, 면접기간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향사_향을 조합하고 연구하는 사람

회장_경영학과 13학번 조승만

06 JUBC

JUBC는 방송동아리입니다. 주로 학교 체전이나 축제 개회식 폐회식 때 방송 장비를 다루고 있으며 안내방송 또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속적으로는 체전, 축제 홍보 영상 제작이나 동아리 로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리 부서는 기술제작부와 아나운서 보도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술제작부 쪽에서는 주로 영상 제작 및 편집, 방송장비 등을 맡고 있고 아나운서 보도부 쪽에서는 안내 방송 및 인터뷰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이나 방송장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JUBC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_임상병리학과 16학번 박경민

07 오탁구



오탁구는 친목 도모 및 탁구 관련 활동을 하는 탁구동아리입니다. 탁구 스킬이 부족한 부원들을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서 수준별로 개인 기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 전체가 자신들의 학과 대표로 대부분 선출되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탁구 실력 향상은 보장합니다. 또한 타 지역 대학과 교류전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대학 탁구 대회 출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동아리 내의 친목도 활발하여 좋은 선후배 관계도 장점인 오탁구에 들어오세요!

회장_사회복지학과 13학번 노윤석

08 ENT동아리

ENT 동아리는 남여 상관없이 춤, 랩, 노래 등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는 랩을 직접 작사하여 만들 뿐만 아니라 혼성이나 듀엣으로 노래도 연습도 하고 얼반, 방송댄스, 커플 댄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제 때는 자신이 연습했던 것을 뽐내고 끼도 발산하면서 재밌는 대학생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ENT에서는 결혼식 축하공연이나 군사학교 공연 섭외가 들어올 경우 외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회장_경호학과 16학번 김경훈

09 J.U.S.T

JUST는 중원대학교 축구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즐길 수 있는 사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친목을 도모하고 축구를 하기 위해 결성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부원들과 상의하여 매주 2일 정도 정기 모임을 가져 학교 풋살장 및 읍내 초·중학교 운동장에서 연습게임도 하고 매년 광복절에는 괴산군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회장_경찰행정학과 14학번 정우천

10 쌍쌍 볼링동아리



쌍쌍 볼링동아리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괴산 읍내에 위치한 주성 볼링장에서 볼링을 즐깁니다. 쌍쌍 동아리는 서로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한 번씩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기 회식'^^을 합니다. 동아리 부원들끼리 경기를 하는 정기전을 포함하여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전도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괴산군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아마추어 대회도 추진 중입니다.

회장_항공운항학과 17학번 한우현

2018학년도 총학생회 '미르'



▶ '미르' 총학생회 임원들_앞줄 왼쪽부터 총학생회장 김지수, 부총학생회장 박정근, 뒷줄 왼쪽부터 교육복지국장 박영원, 문화체육국장 박병준, 재정사무국장 김현, 기획정책국장 권민석, 홍보국장 김명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학년도 중원대학교를 이끌어 갈 총학생회 '미르'입니다.

'미르'란 용의 한자어와 dragon의 영어를 다듬은 순우리말입니다. 우리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앞으로 진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학생회가 되고자 '미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의 본질은 학생들의 자치 행정기구입니다. 그 본질에 맞게 저희 '미르'는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고 느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중원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저희 '미르'를 만들었습니다. 그 표들의 가치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학우들의 찬란한 대학생활의 기반을 다지고 더욱 빛낼 수 있는 총학생회 '미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1.교육

– 배움의 장 활성화 –

1) 교양수업의 다양화 진행
2) F.O.S 비교과 수업 개선
3) 교내 배움의 장 추진
4) 교외 배움의 장 추진
5) 해외 배움의 장 추진

2.문화

– 문화체육 활성화 –

1) 동아리 활성화
2) 체육대회 종목 개선
3) 축제 활성화

3.복지

– 교내안전 및 취약시설 개선 –

1) 학과 실습실 CCTV 설치
2) 승강기 정기적인 안전점검
3) 몰래 카메라 탐지기 진행

– 택배실 개선 –

1) 택배실 이전
2) 초성 구분으로 택배시간 단축

– 셔틀버스 개선 –

1) 셔틀버스 환급제도 도입
2) 명절기간 호남, 내륙지방 버스개설

4.소통

– SNS를 통한 커뮤니티 강화 –

1) 중앙 회의록 공개
2)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 시각화

– 학생회비 투명성 강화 –

1) 매달 말 정확한 학생회비 내역 공개
2) 새로운 양식 도입
3) 문서화 진행으로 열람기능

– 소통의 공간 활성화 –

1) 학생회 게시판 설치
2) 학생식당 모니터 활용
3) 총학생회 월말 보고서 작성
4) 학기말 설문조사
5) 중원대 총회의 진행

제16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배들의 한 마디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한 마디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의 알찬 조언들을 통해 더욱 빛나는 학창시절을 시작하세요! :D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1학년 때는 내가 이 정도로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컷 놀아요. 대신 출석은 꼭! 챙기세요^^ 2학년 때부터는 학과 활동이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JR 학생기자단 같은 좋은 활동이 많으니까 스펙도 챙기면서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박수현

학교에서 학생회, 홍보대사, 학생기자단, 학과임원, 총동아리연합회,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등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4년! 너무 아쉽지 않나요? 남들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새롭고 뜻 있는 캠퍼스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보건행정학과 15학번 김채현

欢迎你们来到这个新的大家庭 怀揣着梦想 这里是实现你走向人生成功与辉煌的又一起点。
(새로운 가정에 꿈을 가지고 온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당신 인생의 성공과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유학생 장운현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여러가지를 잘 찾고 잘 누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후회 없는 대학생활 되길 응원할게요. 파이팅!!✩

국제통상학과 16학번 박숙인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의료공학과 15학번 정지윤

대학 4년 다닌다고 다 졸업하는 거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1학년 때부터 졸업학점 신경 쓰고 5학년은 하지마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 정종학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신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며 많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 해 보세요. 다 추억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배서희

다들 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저의 꿀팁은 짐은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챙겨가세요!! 읍내에 나가면 다이소도 있으니 거기서 사면되고, 생활하다보면 어차피 짐은 늘어날거에요! 그러니 최소한으로 챙기세요! 그리고 박스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서, 퇴사 할 때 쓰면 퇴사 할 때 박스 따로 안사도 되고 좋아요!!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조서언

신입생여러분 !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잊지 못할 추억들과 소중한 인연들 많이 만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중원인 되시기를 바래요. 제가 추천하는 학교생활 꿀팁 조언은,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잡는 것입니다 기회란 준비되어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니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럼 파이팅 입니다!

경영학과 14학번 장윤정

입학을 축하합니다!~
모두들 꿈을 펼칠 수 있는 빛나는 스무살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 15학번 박주연

종원대 신입생 여러분들 첫 대학 생활 행복하게 시작하길 응원 하겠습니다! 입학 초반에 술 많이 먹어서 건강 잃지 말고 건강 조심하고 성적 관리 잘하세요! 또 교수님과의 수요일 면담도 꾸준히 참여해주세요!

종교문화학과 17학번 이주희

중원대 18학번 새내기분들 얼른 보고싶어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요!

보건행정학과 17학번 박소영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공부, 취업준비로 막상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겨내며 씩씩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6학번 문수빈

사랑합니다 18학번 여러분들, 4년 동안 많은 추억 만들고 행복한 대학생활하시길 응원합니다!

경영학과 14학번 엄동도

꿈을 위한 노력 - 산업디자인학과의 꿈의 결실



작년 한 해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공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S-IDEA 공모전과 충북 서포터즈 디자인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디자인해서 얻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올해도 많은 활약 기대하며, 지금부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충북 서포터즈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상

충북 서포터즈 공모전이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충청북도와 중원대학교, 세명대학교가 협력해 이들 대학 학생들의 디자인 재능을 사회에 기부해 도 및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개발, 실제 활용·설치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2016년에도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수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 이아람 지도교수와 11개 팀 총 58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공모전에 출전해 큰 상을 휩쓸었습니다.





▶ 위쪽_ 최우수상 이쿠조 (김미송(13학번), 김하늘(13학번), 이준구(14학번), 노학현(12학번) / 아랫쪽_ 우수상 해맑게 웃조 (김유미(15학번), 이준희(13학번), 우환수(12학번), 우도오(13학번), 김이영(15학번)



최우수 수상작-수암골 안내 사인 디자인

청주의 수암골 지역 안내 사인 디자인입니다. 수암골을 방문했을 때 야경이 멋진 카페 언덕과 드라마 촬영지, 벽화거리, 등산로 등 많은 관광지가 있었지만 막상 길이 익숙한 청주시민을 제외한 외부인들은 골목골목이 복잡하여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암골에 비치된 안내 사인이 있긴 했지만 각기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통일감이 매우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암골이 하나의 문화공간처럼 보이는 로고를 기본 로고, 해질녘, 야경, 밤의 네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로고를 바탕으로 통일감을 주는 안내 픽토그램과 수암골 내의 안내판, 팜플렛, 포스터, 여러 패키지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상 소감_ 산업디자인학과 13학번 김하늘

다른 개인 공모전들과는 다르게 팀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공모전이다 보니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진행하다보니 어느 샌가 저희도 모르게 팀 모두가 수암골이라는 공간에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큰 상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이 활동 자체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상 수상작-신항리 아이덴티티 디자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메인 로고는 신항리의 약초와 꽃향기 그리고 앞으로 신항리의 여러 관광지 조성 사업을 고려하여 만들었으며 여러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신항리는 귀농 주민과 현지 주민의 화합이 잘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보다 화합이 잘되고 주민들이 잘 뭉쳐 함께 의기투합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인 로고는 신항리의 화합을 약초와 꽃향기의 조화로 표현하였습니다. 메인 로고는 꽃향기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여 잎으로 신항리로 관광 오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항리의 여러 사업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워드 마크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활용 로고는 약초아이콘과 꽃향기 아이콘 두 가지 타입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꽃의 순환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정성과 소중함을 표현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상 소감_ 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김유미

하나의 마을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맡아서 하게 되어 그 마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디자인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 더 열정적으로 이 공모전에 임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팀 과제로 하다 보니 개인 과제와는 다르게 신경써야할 것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배울 점도 많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IDEA 공모전 장려상

작품 소개

편리한 전기자전거라는 주제에 맞게 배달통을 탈부착 하여 이동이 편리하고, 세발자전거의 장점을 이용해 배달 물건과 탑승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배달 박스가 탈부착이 되어 물건을 빠르고 쉽게 배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배달통은 오염 시 손쉽게 탈부착과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자 산업디자인학과 10학번 박형민 학생

졸업을 앞두고 정부에서 주최하는 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후배들도 이런 기회를 많이 찾아보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졸업한 민철이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 또한 올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졸업을 하지만 후배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자 산업디자인학과 10학번 권민철 학생

먼저 공모전을 추천해주신 안조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공모전 수상으로 후배님들께 짧지만 이렇게 소감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후배님들! 지금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많은 공모전에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후배님들의 열정과 실력은 그 어떤 학교 학생들 보다 더 높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제16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TOGETHER : JWU & HTU

8일간의 여정 나눔과 봉사로 하나 되다





- 베트남 호치민 해외봉사 -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주로 어떻게 쓰시나요? 자신만을 위해 쓰기보다 다른 사람과 열정과 시간을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JR이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나누러 떠나는 해외봉사단을 밀착 취재해 보았습니다. 8일 동안의 베트남 호찌민으로의 여정 출발합니다!

DAY 1 첫 만남부터 우린 인연

생김새는 다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베트남 후텍대학교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100여 명이 학생들이 모두 나와서 중원대 해외봉사단을 반갑게 맞아주며 발대식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조금은 서로 어색했지만 먼저 다가오는 학생들 덕분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DAY 2~3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육 봉사

두 번째 날에는 베트남어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와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서로의 눈빛과 손짓으로 더욱 교감할 수 있었다. 태권도를 가르치며 정도 쌓고 한국어 수업도 하면서 문화적 교류를 이루며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날이었다. 또한 한국어 수업시간에는 한국어 이름과 베트남 이름을 지어주면서 친해지기도 하였다.













DAY 4 베트남 역사수업 (전쟁박물관 방문)

후텍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전쟁박물관에 방문했다. 후텍대학교 학생들이 수첩에 한국어로 설명을 적어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전을 찾으면서 설명해주려는 배려가 감사했다. 덕분에 베트남 역사 또한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에 모두들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DAY 5~6 고아원 방문 & 베트남 축구결승전









베트남 봉사를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고아원을 방문하여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노래와 춤도 추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그림도 그리고 동요도 부르면서 서로 마주치는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순간마다 아이들과 교감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었던 것은 봉사단원들이 준비한 수제쿠키, K-pop아이돌 브로슈어를 주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

DAY 7 수료식 & 해단식

베트남 친구들과의 마지막 수업으로 서로 일주일 동안의 소감을 발표하며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수료식을 가졌다. 처음 만났던 곳에서 해단식을 하며 감사의 인사와 후텍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들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감상하였다.



DAY 7 공항

[해단식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_ 'MEMORY OF YESTERDAY (HTU&JWU)']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 아침부터 공항에서 기다려준 후텍대학교 학생들!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새 많이 정이 들어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공항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도 영상통화를 하며 헤어짐의 아쉬움과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했다.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우리는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빠른 시일 내에 후텍대학교와의 교류를 기대합니다.

박수현기자 qkrtngus2015@jwu.ac.kr

해외 봉사를 마치며



후텍대학교 Thanh Vy 일주일동안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 한국어 단어게임 수업과 k-pop 수업으로 진짜 재미있었고 태권도 수업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문화수업은 한국의 문화인 한복과 태극기를 그리며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이였지만 중원대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2학번 구민철,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이연경

해외봉사에서 잊을 수 없었던 시간은 고아원을 방문을 했을 때이다. 고아원에는 건강하고 활발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이곳에 보내져 지내는 아이들, 그리고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겹게 숨을 쉬며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이들에게는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볼 수 있었다. 고아원에 다녀오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 나는 정말 좋은 환경과 부모님,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겠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된 기회였다.





사회복지학과 13학번 박명환,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이아현

후텍대학교 학생들과의 첫 만남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아직까지도 그 얼굴들이 선명하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을 한다.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사로잡혀있었다. 하지만 후텍대학교 학생들은 그런 우리에게 경계심과 적대감 보다는 따듯한 웃음과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환경 등 서로 공통점이란 것은 학생이라는 하나였지만,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다. 사실 살아가다보면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우리를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변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우리가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는 것과 그 스스로를 사랑하는 환경을 모두가 손 모아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하며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첫 날 후텍대학교 친구들을 보며 생각을 했다.



태권도학과 16학번 신웅기 베트남에 있는 8박9일 이라는 기간 동안 후텍대학교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고 또 장난도 많이 치면서 쌓아온 우정들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작별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아쉬움이 밀려왔다. 마지막수업을 하러 들어가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전부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눈시울을 붉혔다. 해단식에서 7일간의 흔적을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느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 번 더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문화교류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처음이라 확실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남은 아쉬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푸른 잔디위에서 딱딱한 책상 앞으로

: 정성학 동문, 그 뒷이야기



지난 14호 학보에서 유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준 정성학 동문의 인터뷰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얼마 전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성학 동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미국에서 당당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근황을 살짝 엿볼까요?

1 지난 인터뷰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5월 졸업 후 꾸준히 구직 활동을 했었습니다. 운이 좋아,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 있는 병원과 팀에서도 제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좀 더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 현재 재직 중인 Shelbyville high school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후, 8월부터 출근하여 Head athletic trainer 겸 스포츠 의학/의학용어 담당 선생님으로 근무 중입니다.

2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정규 수업시간 중에는 의학용어와 스포츠 의학을 오전에 2교시, 오후에 2교시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습니다. 방과 후에는 제 본업인 Athletic Trainer 일과를 시작 합니다. 부상을 입은 선수들의 치료부터 재활, 컨디셔닝, 부상방지 등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저의 주 업무 입니다. 가을학기(9월~12월) 에는 남자 풋볼팀과 여자 배구팀을 관리합니다. 풋볼은 부상 빈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바쁜 시기 입니다. 가을학기 이후 봄 학기(1월~5월)가 시작되면, 남녀 농구, 야구, 소프트볼, 육상 등 많은 스포츠가 시작됩니다. 큰 상해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종목 별 특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상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공부도 되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 매 경기를 관중석이 아닌 팀 벤치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AT 만의 이점을 즐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많은 자격증, 좋은 스펙을 따지기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면 어느새 준비된 인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16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니 여기 아직 아이 가봤니~

한국 속 중국 '차이나타운'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방학이나 주말, 휴가 등을 이용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성수기 때는 비행기 표가 더 비싸지고,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은 그림의 떡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여행 하면서 해외여행 하는 기분 느끼기!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이기도, 문화적으로도 친근한 나라인 중국!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을 도착하게 되면 우선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건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간판, 그리고 홍등입니다. 길거리에는 튀기고 볶고 굽는 먹거리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 중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짜장면 박물관

이 중 유명한 짜장면 집이 있는데요! 바로 '공화춘'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을 가장 먼저 팔았던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원래 가게는 낡고 오래돼 현재는 짜장면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보수를 통해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공화춘'은 다른 건물에서 팔고 있습니다. 방송출연도 여러 차례 해서 사람들이 줄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삼국지 벽화, 송월동 동화마을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삼국지 벽화가, 아래로 내려가면 송월동 동화마을이 보입니다. 침체되었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리기 시작한 140여 개의 벽화는 가족, 커플, 친구 등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 차이나타운





서울 차이나타운은 1980년대 말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역과 가까우면서도 주거비용이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형성 되었습니다.

중국 현지 먹거리





중국어 간판으로 된 음식점과 마트에는 중국식 재료와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달달한 딸기사탕 '탕후루 (糖葫芦)' 도 있습니다.

중국 음식 마라탕(辣) & 만두













마라탕은 취향대로 재료를 골라 바구니에 담고 무게대로 계산을 합니다. 마라탕의 국물과 만두 소는 중국에서 먹어봤던 그 맛 그대로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이 직접 거주하며 형성된 곳답게 언어, 음식, 문화 등이 중국 현지와 똑같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선 중국어가 통용되고 음식 또한 중국동북지방 음식들입니다.

동포타운 - 가리봉 종합시장













시장 안에는 중국 현지에서 수입한 중국과자, 중국 술, 중국 향신료, 해바라기 씨 등등 중국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조선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도시와 청년경찰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영화에서는 조선족들이 폭력을 일삼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묘사되지만 이곳에서 직접 만나보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들만의 정취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VS 서울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차이나타운
접근성	 인천역 하차 후 도보 5분	 2호선 대림역 하차 후 도보 5분 or 7호선 남구로역 하차 후 도보 5분
먹거리	 관광객 입맛에 맞춰진 음식	 중국 정통음식의 맛을 맛 볼 수 있음
볼거리	 벽화마을, 삼국지 거리 등 사진 연출하기 좋음	 특별히 조성된 곳 없음, 하지만 작은 시골 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풍경

두 군데의 차이나타운이 각각 나름의 매력과 볼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곳을 뽑을 수는 없지만 두 군데 모두 중국이라는 나라를 맛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거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중국 문화 관광지 '차이나타운'~! 중국문화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 인천차이나타운 사진2개 & 인천역 사진1개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객원 기자 – 중국어학과 조영호

채식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채식주의(vegetarianism)' 란, 말 그대로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동물보호, 환경보호, 건강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제 막 채식을 시작하는 초급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1 채식주의자의 유형!

베지테리언

완전 채식을 하는 [Vegan;비건]
우유, 유제품은 허용하나 생선, 해물, 달걀은 불허용하는 [Lacto;락토]
달걀은 허용하나 생선, 해물, 우유, 유제품은 불허용하는 [Ovo;오보]
달걀, 우유, 유제품을 허용하고 생선과 해물을 불허용하는 [Lacto Ovo;락토 오보]

세미 베지테리언 [육류를 조금씩 섭취하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우유, 달걀, 조류, 어류는 허용하나 붉은 살코기는 불허용하는 [Pollo;폴로]
우유, 달걀, 어류는 허용하고 가금류와 조류는 불허용하는 [Pesco;페스코]
평소에는 'Vegan' 이지만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는 [Flexitarian;플렉시테리안]

02 채식주의자를 위한 쇼핑몰!

러빙헛 비건채식 쇼핑몰

http://lovinghut.co.kr/index.html



'러빙헛' 은 전 세계에서 13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채식주의 쇼핑몰입니다. '100% 동물성분 NO' 를 원칙으로 친환경, 유기농 제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100% 식물성 단백질로 된 콩고기, 밀고기 뿐 만 아니라 세제, 화장품, 반려동물의 채식 사료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지푸드

http://www1.vegefood.co.kr/



'베지푸드' 는 국내 유일 채식 전문 기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각종 간식거리, 캠핑요리, 친환경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채식을 하다보면 달달한 간식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베지푸드' 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채식 육포, 콩을 이용한 치킨 대용 요리, 유기농 설탕을 이용해 만든 단팥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종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여 채식요리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입니다.

베지랜드

http://lovinghut.co.kr/index.html



'베지랜드' 는 철저히 비유전자조작식품(NON-GMO)만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동물성분 뿐 만 아니라 계란, 우유, 화학조미료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채식식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건용 콩단백 부터 비건 조미료 등 다양한 콩요리를 판매하여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03 맛있는 채식주의!

막상 채식을 시작하려하면 막막하기도 할 텐데요, 채식을 쉽게 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소만 먹는다고 올바른 식단이 아닙니다.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곡류와 콩, 견과류, 해조류,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소는 네다섯 가지 이상으로 제철에 나는 뿌리채소, 잎채소 등의 종류를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버섯, 두부, 유제품을 이용해 식단을 구성하면 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단이 있으니 참고해 봅시다.

하루 식단 추천

아침 - 베지너겟 샐러드 + 국산 검은콩 두유
점심 - 채식 카레라이스 + 양배추겉절이 + 데친 브로컬리쟈소 초장
저녁 - 채식 떡만두국 + 비건배추김치(or깍두기)

아침 - 무농약 단호박죽
점심 - 비건 참치샌드위치 + 귀리음료
저녁 - 비건 백반식3(잡곡밥+쌈 채소+ 쌈장+현미콩불구이+풋고추 오이무침)

아침 - 잣죽 + 동치미
점심 - 채식 떡볶이 + 채식 어묵탕
저녁 - 비건 백반식5(검은현미콩밥 + 채식 두 개장+시금치무침+백김치)

04 채식주의 Talk!



산업디자인(15) 박수현양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채식을 시작했어요. 완벽한 비건 채식은 아니고 달걀과 유제품은 같이 먹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건강해 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많이 힘들더라구요... 채식은 방학 기간 동안만 했고 학기 중에는 이런저런 약속들도 있고 채소만 먹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채식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



항공서비스(15) 조서언양

"대학교 1학년 때 중국을 다녀오면서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속을 최대한 비웠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만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스 없이 먹었지만 도저히 입에 안 맞아서 오리엔탈소스와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고기가 먹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순두부를 먹거나 방울토마토와 같은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총 20일이 걸렸고 피부는 나아졌습니다. 물론 살도 10키로나 빠졌고요. 지금은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스스로도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위장이 많이 작아졌어요."

채식주의라고해서 무작정 채소만 먹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채소만 섭취하는 '비건' 부터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하는 '플렉시테리언' 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채식을 시작하고 싶다면 채식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채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신입생을 위한 괴산읍내지도

한 눈에 보는 괴산의 Hot place



괴산 장날



괴산 장날은 3일, 8일 장으로한번 쯤 나가 보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장날 치킨과 족발도 추천! 반찬이 필요하다면 장날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 좋은날 친구들과 장날의 분위기를 느껴 보세요.

생활 용품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필요한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사할 때 필요한 생필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두고 오셨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하나로 마트, 화랑 마트, 주성마트, 다이소 등 많은 상점들을 이용하세요. 새로운 룸메들과 손 꼭 잡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은 어떨까요?

[015E]어플



[015E] 컴퓨터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어플로 공지사항 교내 전화번호, 배달음식 등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황금개띠의 해로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돌아오는 괴산 읍내지도! 올해도 빠질 수 없겠죠? 2018년 새로워진 괴산 읍내의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괴산에는 숨어있는 맛집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학기동안 찾아서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정말 맛있는데 왜 없지?" 하는 맛집을 발견한다면 꼭 제보 부탁드릴게요!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